

안녕하십니까, 자승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눈이 자주 내리고 ‘수십 년만의 한파’가 찾아오고 추위도 만만치 않아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여러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전하셨듯이, 따뜻한 말 한 마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요즈음 산중의 절을 찾는 분들이 점차 많아진다고 합니다.

‘불보살님께 예경을 드리고 불법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정수인 사찰의 아름다움을 음미하기 위하여, 또는 흐트러진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래의 희망을 가꾸기 위하여 …… ’

“깊은 산중의 절에는 무언가가 있어!” 라고는 느끼는데, 막상 산사의 문화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안에는 세속의 일상적인 삶과는 다른 가치로 채워져 있어서 궁금한 것도 많지만, 누구를 붙잡고 이 궁금증을 풀어달라고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스님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는 고시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지안스님이 『산사는 깊다』를 세상에 내놓은 데에는 대중들의 이런 답답함을 풀어주어야겠다는 소박한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벽 도량적으로 시작하여 취침에 이르는 산사의 일상과 출가에서 다비까지 건너가는 스님의 일생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풀어내 줍니다.

이번에 보내드리는 이 책이 여러분과 가족들이 언제든 산사에 편안히 다가가 그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스스로 편안해지고 가족과 이웃에 나아가 온 세상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화안(和顔) 행자’가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설은 새해의 희망을 이웃과 나누는 보시 실천의 날입니다.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맑고 향기로운 정토(淨土)세상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가는 길이라고 여기고, 우리 종단도 이 길을 묵묵히 갈 것입니다.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도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불기2557(2013)년 설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